

컴퓨터공학부 신입생을 위한 학교생활 안내

(2016학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이제희

컴퓨터공학부에서는 무엇을 배우나?

1학년 때는 교양과목 위주

수학, 물리, 화학, 교양 등등

고등학교 때와는 별반 다르지 않음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공과목

컴퓨터 개론 및 실습, 컴퓨터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연습 등등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잘 해야 하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란 생각하는 방법

생각하는 방법에 대한 끊임 없는 훈련 필요

전공과목의 많은 숙제가 프로그래밍을 요구

프로그래밍 경험이 없는 신입생이 꽤 많다.

반면, 프로그래밍 경진대회 입상자들도 많다.

1, 2학년 전공 과목을 통해서 프로그래밍 교육

학생들의 흔한 고민 혹은 질문

수업 내용을 못 따라 가겠어요.

무슨 수업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2학년인데 3학년 전공 과목을 듣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부/복수전공을 생각 중인데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방학 중에 회사에서 인턴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대학 생활을 즐기다 보니 학사 경고 위기에 몰렸어요.

나보다 잘하는 동료가 너무 많은데...

고등학교에서는 아무리 잘 했어도 대학에서는 누군가는
중간, 누군가는 꼴찌도 해야한다.

나보다 잘하는 동료가 너무 많은데...

고등학교에서는 아무리 잘 했어도 대학에서는 누군가는
중간, 누군가는 꼴찌도 해야한다.

모든 학생들에게는 자신이 가야할 길이 있다.

나보다 잘하는 동료가 너무 많은데...

고등학교에서는 아무리 잘 했어도 대학에서는 누군가는
중간, 누군가는 꼴찌도 해야한다.

모든 학생들에게는 자신이 가야할 길이 있다.

뛰어난 동료는 칭찬해줘라. 그리고, 뒤돌아 서서 잊어라.

나보다 잘하는 동료가 너무 많은데...

고등학교에서는 아무리 잘 했어도 대학에서는 누군가는
중간, 누군가는 꼴찌도 해야한다.

모든 학생들에게는 자신이 가야할 길이 있다.

뛰어난 동료는 칭찬해줘라. 그리고, 뒤돌아 서서 잊어라.
경쟁하지 말고, 협력하라.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만나야 하나?

많은 경우 선후배 간에 정보/조언을 주고 받는다.

막상 지도교수에게 찾아가는 일은 드물다.

지도교수든 지도교수가 아니어도 교수들 만나라.

이메일로 자신이 누구인지, 왜 만나려고 하는지 알리고

약속시간을 잡는다. 만나서 손해 볼 것 없다.

단, 교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1학년 책임교수



김형주

301동 406호
hjk@snu.ac.kr
880-18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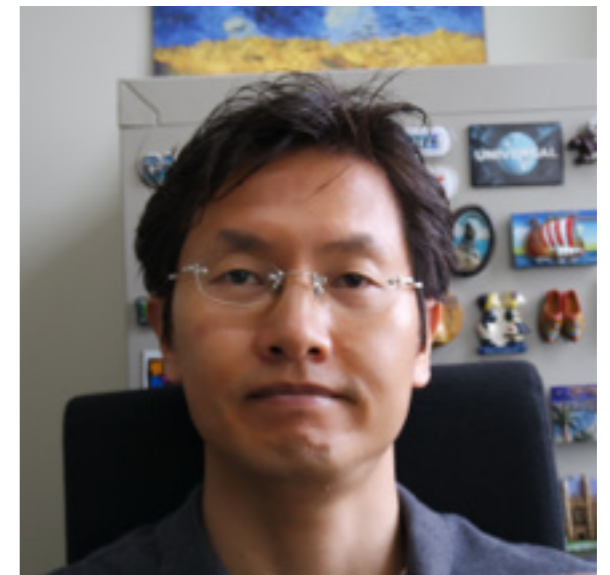
유승주

302동 427호
Sungjoo.yoo@gmail.com
880-9392



김건희

302동 327호
Gunhee@snu.ac.kr
880-7300



학생들이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는가?

자기 스스로를 감당하라.

성인으로서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라.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익혀라.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갖추라.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묻기, 답하기, 생각하는

전공, 수학, 언어 능력 (한국어 + 영어)

인문, 사회, 역사, 철학, 예술, 건강

학교 생활

학생회, 동아리, 학생 행사

밖에서 구경하기 보다는, 안에서 만들어라.

7개의 학부 동아리

Comsee, 컴공인의 밤, 컴퓨터전시회

국내 및 해외 인턴, 해외 교류 프로그램



장학금

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기회가 많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라.

성적 2.7 이상 신청자 중 89%가 장학금 수혜

앞으로의 진로

진학

석/박사과정, 본교/유학 -> 연구직, 기업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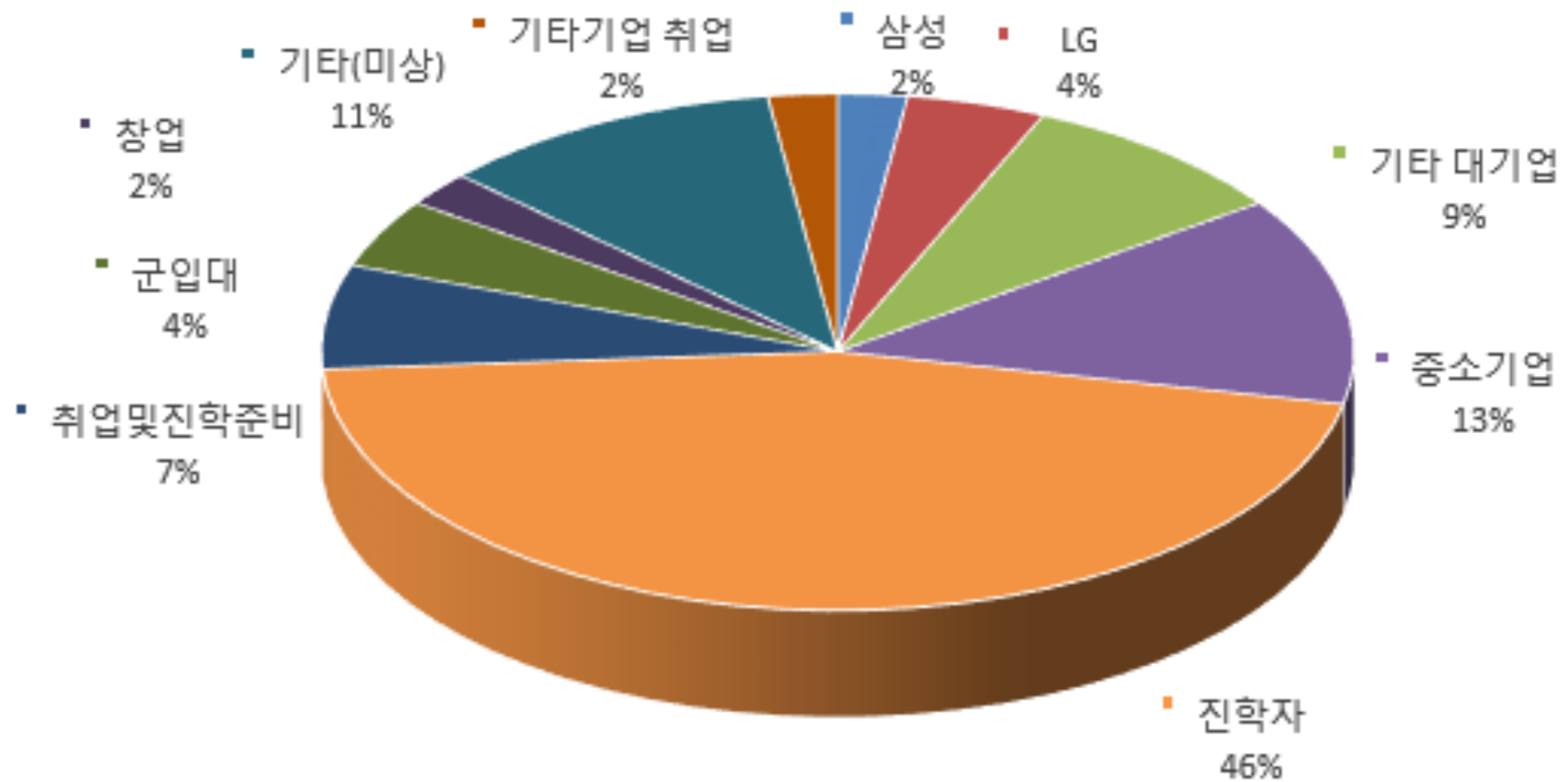
창업

벤처 성공 신화, 창업가 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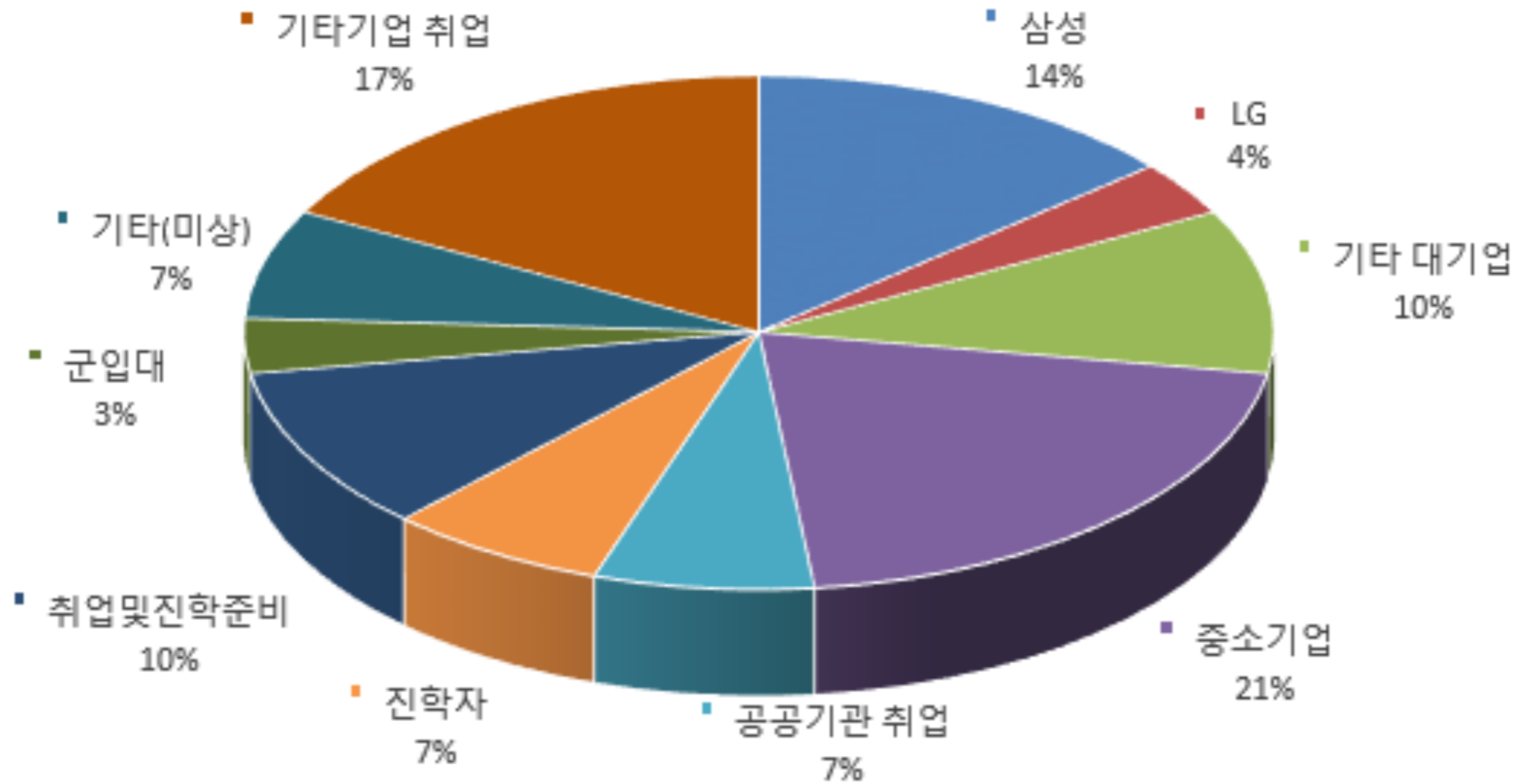
취업/전문직

대기업, 중소기업, 해외 취업, 공무원, 변호사, 예술, 등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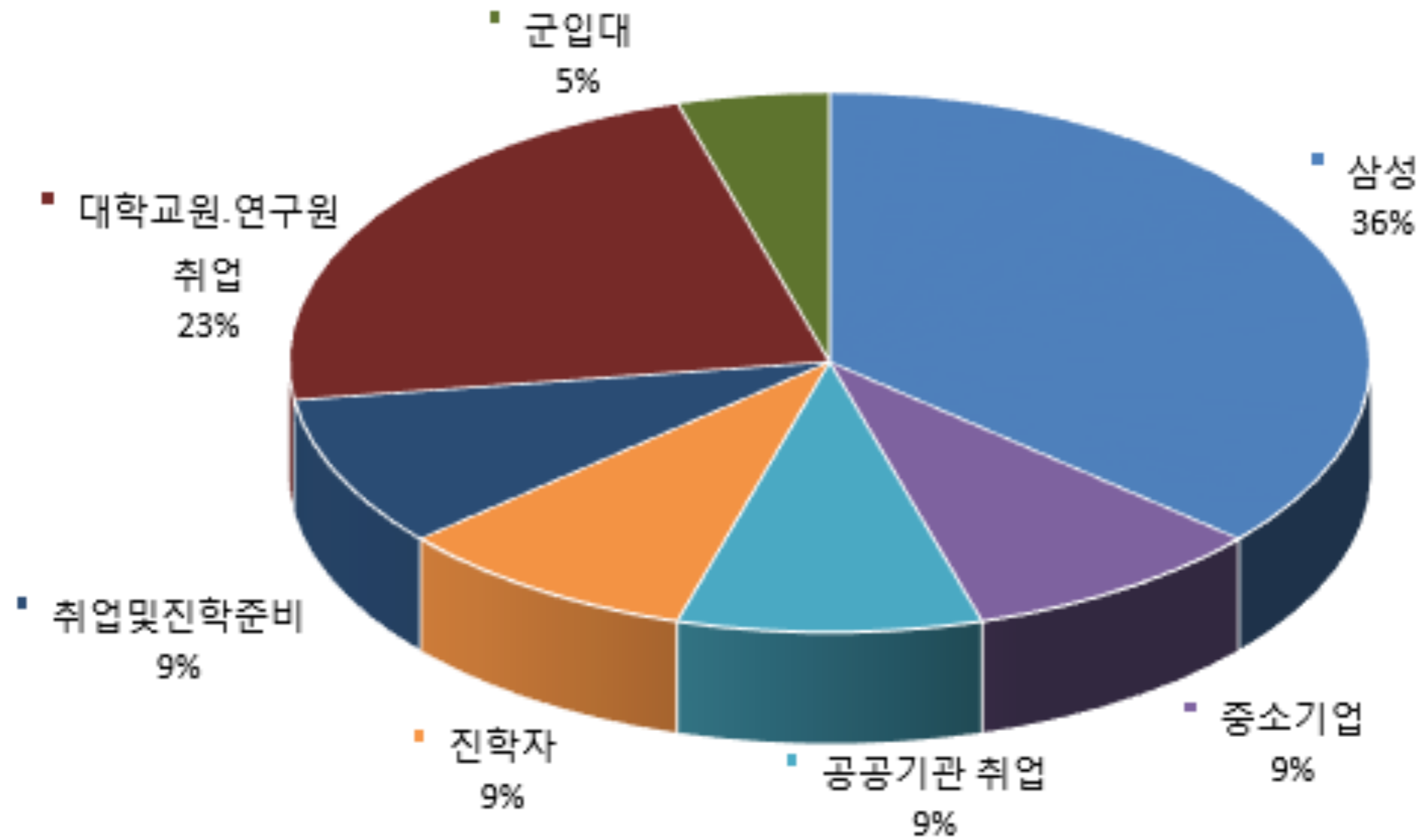
2014년 학사(46명)



2014년 석사(29명)



2014년 박사(22명)



무한 가능성

우리 학부 출신 대학 교수 수백명 배출

40세 이하 50대 부호 중 35명은 상속, 15명은 자수성가
자수성가 중 8명이 컴퓨터공학/과학 출신

대기업, 정부부처, IT벤처의 임원, 자문위원, 정부고위직,
CTO 등 핵심 역할 수행

